

중세국어의 대우 체계 소고

— ‘-습-’을 중심으로 —

한 재 영

1.0 국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로 대우표현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그에 따라 국어의 대우법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이미 상당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세국어의 경우에 존대법과 겸양법 그리고 공손법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한 것인 듯이도 생각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장의 주체를 대접한다는 존대법의 ‘-시-’가 그렇고, 객체를 대접한다는 ‘-습-’이 그러하며, 문장 외적 요소인 청자를 대접한다는 공손법이 또한 그렇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성격 자체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주체라고 할 때의 주체의 개념 정의도 그리 선명한 것이 못된다는 점이라든가,¹⁾ 객체라고 할 때의 객체의 대상이 상당히 포괄적이라든가,²⁾ 공손법의 등분에서의 각 등분의 성격 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³⁾

본고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내용은 대우 표현 체계 속에서의 ‘-습-’의 기능 파악에 있다.⁴⁾ 중세국어에서 상당히 왕성한 생산력을 가졌던 ‘-습-’이 조만간 위축된 모습으로 자세를 바꾸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점이 지만, ‘-습-’에 대한 많은 기존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습-’은 아직 우리 결

- 1) ‘-시-’가 호응하는 대접의 대상이 주체가 아니라 경험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홍빈(1985)을 참조할 것.
- 2) 기존의 논의가 보이고 있는 객체 개념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서는 허용(1963), 안병희(1982) 등을 참조할 것.
- 3) 공손법의 등분 문제와 존대법, 겸양법과의 관계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본고의 일차적인 관심의 영역에서는 벗어나 있다.
- 4) 김충희(1990)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습-’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에서 그 본질적인 기능에 대하여 좀더 다른 답을 기다리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1.1 사실 그간의 많은 논의들이 '-습-'에 대하여, 각기 다소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는 할지라도, 크게 본다면 이미 우리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의 논의도 일단 '-습-'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을 대우법의 틀과 겸양법의 테두리 안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겸양”(김형규 1962, 1975)이라든가, “화자가 객어로 표시된 객체를 높이는 객체 존대의 접미사”(허웅 1954), “존자인 객체에 대한 비자인 주체의 상하관계의 행위 표시”(전재관 1958), “주체와 화자보다 존귀한 인물에 관계되는 비자의 동작에 나타나는 주체겸양법의 접미사”(안병희 1961) 그리고 “주어와 화자보다 상위자인 객어를 지배하는 동사에 사용되는 겸양법 접미사”(안병희 1982) 등이 기존의 '-습-'에 대한 이해의 대강이다.⁵⁾ '-습-'의 발생조건에 대하여 문장외적 요인의 개입으로 이해한 김동식(1984)의 화용론적인 해석도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할 것이다. 유동석(1991)은 '-습-'이 동사구관할 명사구와 높임 자질의 일치를 보이는 통사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호응관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꾀한 것으로 역시 같은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이 논의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내용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크게 보아 '주체 겸양'과 '객체 존대' 사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른 견해들을 피력하고 있는 기존의 논의들에 대하여 본고는 각기 달리 볼 수 있는 견해들이 각각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우선 주목한다. 그리하여 그들 모두가 수용되는 원리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각각의 논의들이 각각의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만큼씩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라면 그들을 모두가 설명될 수 있는 원리가 따로이 있으리라는 소박한 믿음이 본고의 출발점이다.

5) 여기서 '객체'를 '객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뒤에서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습-'이 나타나는 환경이 통사적인 내용을 넘어 의미적인 측면에 상당히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인용의 경우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객체'라는 용어로 '객어'의 의미까지 담기로 한다.

2.0 여기서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문제의 심각성은 그들 논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만큼씩의 진리에 있다. 우선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 (1) 阿難이 다시 슬보되 大愛道ㅣ 善한 브디 하시며 부처 처엄 나거시놀
손소 기르수 ㅍ시니이다 <월석 10:19>

위의 예(1)은 부처에게 阿難이 이야기 하는 장면으로, 大愛道가 출가하고자 원하지만 부처의 허락을 얻지 못하여 슬퍼하는 것을 보고 阿難이 부처에게 大愛道の 善함과 부처를 길러주었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예(1)에 국한하여 본다면 기존의 대우법에 대한 논의에서 보여준 결론들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위의 (1)은 존경법의 '-시-'와 겸양법의 '-습-' 그리고 공손법의 '-이-'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예이다.⁶⁾ 즉 청자인 부처에 대한 阿難의 대우가 '-이-'로 나타난 것이고, 마음이 선하고 부처를 기른 大愛道를 대접하기 위하여 '-시-'를 취한 것이며, 大愛道가 기른 대상인 부처에 대한 대우가 '-습-'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⁷⁾ 이와 같은 예문으로만 본다면 주체와 객체, 그리고 상대를 각각 대우의 대상으로 하는 대우법의 체계는 정연한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 태도에는 범상히 여길 수 없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2) 7. 부텃 누니 즘은 히 곧 하샤 <남명 상:26>
 님굄 말쌔미 괴 아니 올하시니 <용가 39>
 L. 曹叔良의 姓을 因하야 曹溪라. 하니라 <남명 상:2>
 宮監의 다시연마론 問罪江都를 느치리잇가 <용가 17>

6) 논의 진행의 편의상 존경법, 겸양법, 공손법 등의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체계까지 그대로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어법 전반에 대한 체계 문제는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7) '-습-'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객체에 대한 존대'라는 개념을 극복하고 '행위상위자인 객체에 대한 동작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접미사라고 지적한 내용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취하려는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셈이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후술 참조.

위의 예(2ㄱ, ㄴ)은 속격어미가 각각 ‘-시’과 ‘-의’로 달리 쓰이고 있는 바, 주지하다시피 속격어미로 ‘-시’이 선택되는 경우는 (2ㄱ)에서처럼 ‘부터, 님금’ 등의 존칭체언이나 무정체언의 속격 표지에 국한되는 것이다.⁸⁾ 그 밖의 평칭의 유정체언에는 (2ㄴ)에서와 같이 ‘-이, 의’ 등이 쓰이는 것이다. 이처럼 ‘부터’가 존칭체언이라면 어휘 그 자체로 일차적인 대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어휘적인 대접을 하기 위하여 ‘-님’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이다.⁹⁾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위의 예(1)을 본다면, ‘부처’라는 어휘 자체에 의한 대접과 주체로서의 부처에 대한 대접, 객체로서의 부처에 대한 대접 그리고 청자인 부처에 대한 대접이 각각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이러한 논의 태도는 기존의 견해에 기댄 것으로 일견 질서 정연하다고도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렇지만 문법적으로 정연한 질서를 가지는 듯이 보이는 이러한 대우법의 체계는 상당히 잉여적이고 그래서 비경제적인 체계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결국은 하나의 대상인 부처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의 언어적인 대접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티다, 뵈다, 섬기다’ 등과 같이 대접을 위한 서술어라도 쓰인 문장에 이르면 대접의 양상이 보이는 문제의 심각성은 그 정도를 더한다고 할 것이다.

물론 각각의 해당되는 대접이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고, 대접을 위한 어휘와 문법형태소들에 대하여 그때그때 적절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보이고 있는 설명 내용이 어떠한 체계 속에서 운용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까지 선명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¹¹⁾

8) 속격어미 ‘-시’의 기능에 대해서는 안병희(1968)을 참조할 것.

9) 어휘적인 대우와 ‘-님’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임홍빈(1990ㄱ)을 참조할 것.

10) 여기서 우리가 ‘주체에 대한 대접’이라든가 ‘객체에 대한 대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잠정적인 조치이다. 그러한 표현이 가지고 있는 불분명성과 그에 따른 추상성 때문이다. 대접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기존의 논의 가운데 안병희(1961, 1982ㄴ) 등에서 ‘-습-’을 ‘주어와 화자보다 상위자인 객어를 지배하는 동사에 사용되는 겸양법 접미사’라고 한 지적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것이다.

11)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논의들이 체계적인 것과 거리가 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

2.1 앞서 우리는 기존의 논의가 보여주는 내용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는 수용하는 태도를 취해온 셈이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인 예들을 접하게 될 때, 그들 예들이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보다 선명히 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 (3) ㄱ. 阿難이 부터 보습고<능엄 1:39>
 ㄴ. 諸佛人 神力을 보수바 내 업던 이뵐 얼주보니<석보 13:25>
- (4) ㄱ. 外道ㅣ부터의 묻주와늘<금삼 3:12>
 ㄴ. 지비 가물 비수와늘 어위 큰 詔書로 許호시니<두초 16:5>

위 (3ㄱ, ㄴ)의 예에서 ‘-습-’이 대접하고 있는 내용은 각각 ‘부터’와 ‘諸佛人 神力’이고, (4ㄱ, ㄴ)의 예에서는 각각 ‘부터’와 문면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永王’이다.¹²⁾ 이들 (3)과 (4)의 예는 문장 속에서의 기능에 차이가 있다. 즉 (3)은 대격 자리에 오는 체언인 반면에 (4)는 ‘묻다, 빌다’의 대상인 여격 자리의 체언을 대접하고 있는 것이다. 좀더 엄밀하게 따지자면 (3ㄱ)에서는 ‘부터’를 대접하고 있지만, (3ㄴ)은 ‘諸佛人 神力’에서의 ‘神力’보다는 ‘諸佛’을 대접하고 있는 것이고, 그 때의 ‘諸佛’은 속격 자리에 온 체언이기 때문이다. 타동사문에 한정된 예들이고 한정된 타동사문의 객체를 대접한다고 하지만, 대접해야 할 객체의 내용은 위의 예 (3)과 (4)에서만 보더라도 다양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위의 예 (3)과 (4)에서는 그래도 쉽게 ‘-습-’이 대접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는 셈이다. 다음의 예 (5)에 이르면 과연 ‘-습-’이 대접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은 많은 작업임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국어의 대우법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체계에 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임홍민(1990)을 참조할 것.

12) 두시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鈴木虎雄·黒川洋一 역주(1965)를 참조할 것.

(5) ㄱ. 혼낫 고주로 그룬 像을 供養호습거나 저습거나 合掌호습거나 혼 소닐 드습거나 잠간 머리롤 수기습거나 호야 像을 供養호수며 <석보 13:53>

ㄴ. 顯호되 부테 나롤 어엇비 너기샤 나롤 보습게 호쇼셔<석보 6:40>

위의 예 (5ㄱ)은 부처(諸佛)에 대한 증생(舍利供養하던 이)들의 ‘공양하고, 두려워하고, 합장하고, 한 손을 들고, 머리를 숙이는’ 행위, 동작에 대하여 ‘-습-’이 쓰이고 있는 장면이고, (5ㄴ)은 부처에게 원하는 장면으로 ‘부처가 나를 불쌍히 여겨 나에게 (부처를) 보도록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다. 안병희(1982ㄴ)에서 ‘주어와 화자보다 상위자인 객어를 지배하는 동사’에 나타나는 것으로 규정한 내용이 유효한 예들이다. 기존의 논의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지만 객체의 개념이 표면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인 내용에 있음을 보여 주는 예들인 것이다.

그렇지만 ‘주어와 화자보다 상위자인 객어를 지배하는 동사에 사용되는 겸양법 접미사’라는 정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객어’의 내용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우선 다음의 예 (6)부터 보기로 하자.

(6) ㄱ. 潛龍未飛에 北人이 服事호수바 弓劍추습고 左右에 좃주니<용가 55>

ㄴ. 일후물 놀라수바늘 호사 뒤헤 셔샤 <용가 61>

ㄷ. 大勳이 이루시릴씨 人心이 몸잡더니 禮士溫言호샤 人心이 굳주니 <용가 66>

ㄹ. 大義를 불기실씨 侯國이 오습더니<용가 66>

ㄱ. 나모 아래 안주샤 諸天이 오수며 寶床袈裟물 天龍이 받잡누니 <월곡 117>

ㄴ. 本來 불곤 光明에 諸佛도 비취시며 明月珠도 두수니이다<월곡 18>

ㄷ. 房을 아니 받주바 法으로 막습거늘 龍堂을 빌이라 호시니<월곡 100>

예 (6ㄱ)은 이태조가 왕이 되기 전 동북면에 가 있을 때에 원나라의 장수 趙武가 이태조를 따른 내용을 노래한 것이다. ‘服事하고, 弓劍차고, 좃은’ 동작은 모두 상위자인 이태조에 대한 趙武의 것이지만 각각의 동사가 취하고 있는 의미역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즉 ‘服事하고, 좃은’에 대해서는 ‘(이

태조를) 服事하고, (이태조를) 좃은' 정도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좃다'에 대해서는 '이태조를 위하여' 정도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6ㄴ)은 '당태종의 이름에 왕세충의 군사들이 놀라는' 장면을 보여 주어, 예문의 '일후물'은 놀란 원인이 되는 셈이다. (6ㄷ)의 예는 고려말에 이태조가 관직을 지내던 때의 이야기로 '(이태조를 향하여) 人心이 모이고, (이태조를 향한) 人心이 굳었다'는 내용이다.¹³⁾ (6ㄹ, ㄴ)은 '오다'라는 자동사에 '-습-'이 쓰인 예이다. (6ㄹ)은 (6ㄷ)의 대가 되는 한고조의 고사로 '(세후국이 한고조를 향하여) 온' 것을 노래한 것이고, (6ㄴ)은 '(세존이 나무 아래 앉으시니 여러 하늘의 부처들이 세존께로) 온' 것을 노래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면에 드러나 있든 아니든 간에 (6ㄷ, ㄹ, ㄴ)에서 보인, '-습-'에 의해 대접을 받는 대상의 의미역은 방향이나 도달격이 되는 셈이고, 그에 따라 객체 또는 객어의 범주에 방향이나 도달의 대상이 더해져야 하는 것이다. (6ㄹ)은 (6ㄷ, ㄹ, ㄴ)의 자동사와는 달리 구체적인 객체를 상정할 수 있는 타동사 '돌다'가 쓰인 예문이다.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의 신화 내용으로 '본래부터 밝은 광명인데 여러 부처들도 빛을 비추고 밝은 달과 같은 구슬을 (석가모니가 태어난 궁전에) 달았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돌다'에 쓰인 '-습-'이 대접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석가모니가 태어난 궁전이 되어야 하고, 그때의 궁전은 처소가 되는 셈이다. 물론 존귀한 인물에 관련된 행위인 '구슬을 다는 행동'에 대한 겸양의 의미가 '-습-'에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더라도 그때의 겸양이 누구에 대한 겸양인가가 문제가 되며, 결국 석가모니와의 관계 속에서만이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6ㄷ)의 예는 '迦葉鬱卑羅가 석가모니에게 방을 내주지 않고, 오히려 독한 용이 있다면서 석가모니가 방을 쓰는 것을 막는' 장면이다.¹⁴⁾ 결국 (6ㄷ)도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으나 굳이 찾는다면 석가모니를 대접의 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 (6)을 통하여, '-습-'으로 대접되는 요소의 문장 속에

13) 이러한 경우의 '-습-'에 대하여 허용(1963:44-5)에서는 "[-습]은 어떠한 행동이나 상태가 미치거나 지향하는 대상 상태를 존대할 경우에, 그 행동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용언에 연결되는 것"이라는 정의로, 자동사문과 계사문, 형용사문에서의 '-습-'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자동사문 이외의 형용사문과 계사문에서의 '-습-'에 대해서는 후술 참조.

14) 대우 표현의 선택 여부가 화자의 권한임을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서의 자격이 여러가지 양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의 예가 (6)과 같은 예들에 머문다면, 그들은 객어 또는 객체에 대한 대접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대접을 하고자 하는 객어를 지배하는 동사에 사용된 접미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논의들에서 보인 그와 같은 태도는 다음의 예 (7)에서 보이는 형용사문과 예 (8)에 보이는 계사문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7) ㄱ. 阿難羅雲이 부텃과 갓감수와<법화 4:49>

ㄴ. 大慈悲 世尊의 버릇업습던 일올 魔王이 뉘으르니이다<월곡 75>

(8) ㄱ. 내 부텃 문아드리수오니<법화 1:109>

ㄴ. 羅喉羅는 이 부텃 아드리수오니<법화 4:48>

위의 예 (7)과 (8)에서도 서술어와의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대우를 해야 할 대상이 주어자리가 아닌 곳에 나타날 경우에 '-습-'이 출현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국 객체라든가 객어의 정의는 주어자리, 즉 주격을 취하지 않는 문장의 모든 요소가 되는 셈이고, 그러한 요소가 문장 속에 여럿이 나타나다라도 대우를 해야 할 대상이 있고, 화자가 그에 대하여 대우를 하고자 하는 의도만 있다면, 언제든지 '-습-'은 출현할 수 있다는 셈인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객어라든가 객체라고 이름지어진 것의 범주 속에 담겨야 할 내용이 실로 엄청난 양이고, 상당히 다채로운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게 된다.

2.2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기대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의 (9)와 같다.

(9) ㄱ. 기존의 논의에 기별 때, 하나의 문장에 나타나는 대우 표현 요소들 사이의 관계와 그에 따른 체계는 어떠한 모습인가? 즉 중복되는 대우표현은 없는가?

ㄴ. 객어나 객체로 정의된 내용의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국어의 대우법이 가지고 있는 체계 전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분명하지 못한 셈이지만, 최소한 문법형태소에 의한 대우법과 어휘적인 요소에 의한 대우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국어 대우법 전반에 대한 정당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¹⁵⁾ 그럴 경우에 문법적인 대우 요소와 어휘적인 대우 요소의 중복 출현은 성격이 다른 대우 표현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법적인 요소를 선택하여 대접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주체와 객체 그리고 청자에 대한 대접으로 구분하여 표면적으로는 정연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앞서 예들을 통하여 살핀 바와 같이 객체나 객어라는 의미 범주에 들어 오는 내용은 실로 다채롭기까지 한 것이고, 게다가 ‘-습-’이 그의 생산성을 활발하게 행사하는 시기가 중세국어에 머무르고 만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그저 예상로만 남은 것은 아니다. 이야기 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논의의 범주를 일단 다음의 예 (10)에 한정하여 보기로 하자.

- (10) ㄱ. 아바님 뵈수 ㅅ실 계 어마님 그리신 늠므를 左右 | 습쌔바<용가 91
 ㄴ. 珍蓋盛饌을사 맛내 좌시며 증 자실 계 風流 | 그바습더니<월곡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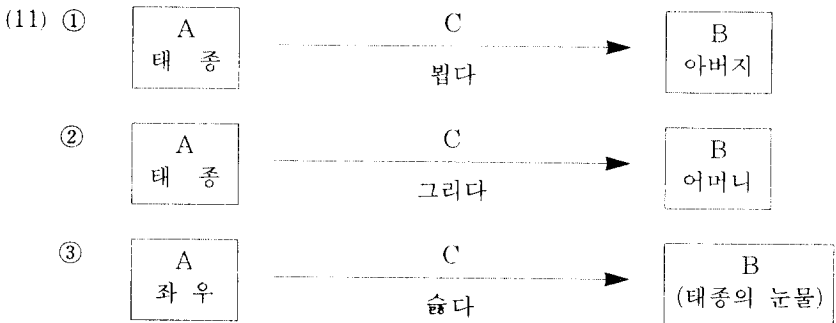
위의 예 (10ㄱ)과 (10ㄴ)의 내용은 다음의 (10'ㄱ, ㄴ)과 같고, 그에 따라 예 (10ㄱ, ㄴ)에 보이는 대우요소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예 (10''ㄱ, ㄴ)과 같다.

- (10') ㄱ. (태종이 어머니인 신의왕후의 상을 당한 후) 아버지인 태조를 만
 날 때 어머니를 그리위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 눈물에 좌우가 슬
 퍼하여
 ㄴ. (태자시절에 석가가) 진수성찬을 맛있게 먹으며, 잠 잘 때 풍류가
 퍼지더니

15) 국어 대우법에서의 어휘적 대우와 문법적 대우의 문제에 대해서는 임흥빈(1990)을 참조할 것.

- (10") ㄱ. ① 아바님 뵈수 뵈실 제 : 아바님, 뵈다, -습-, -시-
 ② 어마님 그리신 늠므를 : 어마님, -시-
 ③ 左右 | 술썩바 : -습-
 ㄴ. ① 진수성찬을 맛내 좌시며 : 좌시다
 ② 줌 자실 제 : -시-
 ③ 風流 | 그바습더니 : -습-

우선 위의 (10ㄱ)은 어휘적인 대우와 문법적인 대우가 모두 나타난 예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어의 대우표현이 과연 무엇을 대우하는 것인가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국어의 대우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는 관문일 것이기 때문이다. (10"ㄱ)에 정리된 대우요소들을 중심으로 그들 사이의 관계를 간단히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의 (11)과 같다. 뒤에 가서 자동사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습-'에 대해서도 살펴볼 피겠지만, 현재까지의 형편으로는 (10ㄴ)의 '風流 | 그바습더니'의 '-습-'으로 대우된다는 객체의 존재는 상정이 어려운 형편이다.



위의 (11)에서 A는 동작의 주체이고, B는 이른바 객체 또는 객어를 나타내며, C는 동사를 나타낸다. C와 함께 그려진 화살표는 '동사에 의한 동작이나 상태의 행사 방향'이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주체경어법이라든가 객체경어법이라는 용어를 별다른 의구심없이 사용해 온 셈이다. 그러나 (11①)과 (11②)의 주체인 '태종'은 그 자체로 이미 대우가 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11①)의 객체인 '아버지'와 (11②)의 객체인 '어머니'는 각각 '-

님'에 의하여 '아바님'과 '어마님'으로 대우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⁶⁾ (11③)의 주체인 '좌우'는 '태종'보다 하위자이므로 어휘 자체가 그만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¹⁷⁾ 이와 같이 주체와 객체가 어휘 그 자체로 이미 합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때, 예 (10ㄱ)에 보이는 '-시-'와 '-습-'이 대접하는 내용이나 대상이 무엇이나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된다. '-시-'와 '-습-'이 주체와 객체를 대접하는 장치라고 한다면 이는 임의적인 장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예 (10ㄱ)을 (12)에 다시 가져와 살피기로 하자.

(12) ㄱ. 어마님 그리신 **눈**므물<용가 91>

ㄴ. 須達이 그리습더니<월곡 174>

(12ㄱ)의 객체인 '어마님'은 '-님'으로 대우되었음에도 '그리수분신'으로 호응되지 않은 반면에, (12ㄴ)의 '須達이(世尊을) 그리워하더니'에서는 문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리워한 대상으로서의 객체인 존칭체언 世尊에 호응하는 '-습-'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들을 통하여 어휘적인 대우 표현이 문법적인 대우 표현과 늘 호응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각각이 선택되는 층위가 다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12ㄱ)에서의 '-님'으로 대우된 객체가 상위자로 대우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이다. 위의 (12)는 객체에 대한 예이지만, 주체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논리 적용이 가능하다. 현대국어의 예이기는 하지만 다음의 예 (13)을 보자.

16)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임흥빈(1990ㄱ)을 참조할 것. '태종'과 같은 고유명사가 각각의 대우 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논리도 상대적인 것이다.

ㄱ. 如來 닐오되 어엇븐 거시라 후느니라<농엄2:19>

ㄴ. 如來 니르시는 微妙히 불근 本來人 무수문 엇대 도라가미 업스잇고<농엄2:26>
동일한 대상인 如來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ㄱ은 부처의 이야기이고, ㄴ은 阿難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화자가 대우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7) (11③)에서의 B 자리에 오는 '태종의 눈물'에 대하여 괄호를 사용한 것은 객체 또는 객어라는 용어를 순수히 문법적인 의미로만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조치이다.

- (13) ㄱ. 손선생님이 가르쳐주셨다.
 ㄴ. 손선생님이 가르쳐주었다.

위의 (13)의 예에서, (13ㄴ)이 대우법의 호응상의 문제는 다소 있을지언정, (13ㄱ)만이 통사적으로 적법한 문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¹⁸⁾ 아울러 (13ㄴ)의 ‘손선생님’이 대우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즉 주체인 ‘손선생님’은 ‘손선생님’으로 이미 대우되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13ㄱ)에 쓰인 ‘-시-’의 기능이다. 다음의 (13')을 보자.

- (13') ㄱ. 손선생이 가르쳐주셨다.
 ㄴ. 손선생이 가르쳐주었다.

(13')의 예가 (13)과는 달리 주체인 ‘손선생’을 대접하고 있지는 않지만, (13'ㄱ)과 (13'ㄴ) 사이에는 엄연히 대우법상의 거리가 있고, 그러한 거리는 (13'ㄴ)이 아무런 대접도 하지 않은 담백한 문장인데 반하여 (13'ㄱ)은 ‘-시-’를 사용하여 대우를 하고 있는 데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체언에 대한 대우가 체언 내부의 문제 해결 방식을 취하여, 체언 자체가 존칭 체언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체언일 경우에는 체언 뒤에 ‘-님’을 붙여 대우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하려는 내용은 ‘-시-’와 ‘-습-’이 용언의 어간 뒤에 연결된다는 사실이다.¹⁹⁾ 다시 말하자면, ‘-시-’와 ‘-습-’의 기능을 용언에 대한 대우 표현으로 보려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앞서 간단히 살핀 바 있는 전재관(1958)이라든가 안병희(1961, 1982ㄴ) 등에서, ‘-습-’에 한정된 논의이기는 하지만, 이미 ‘행위, 동작, 동사’ 등과 관련지어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언에 대한 대우’라는 표현이

18) 물론 보다 적법한 문장은 ‘손선생님께서 가르쳐주셨다.’이겠지만, ‘-께서, -께’ 등의 격조사에 의한 대우는 본고의 영역 밖에 있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 이유이다. 그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어 볼 생각이다.

19) 경어법 선어말어미가 용언 어간 뒤에 출현하는 순서도 경어법의 체계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고는 그에 대한 논의를 수용할 만한 여력을 가지지 못한다. 후일을 기약한다.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동작에 대한 대우이며, 상태에 대한 대우이기도 하다. 현대국어의 예이기는 하지만, ‘계시다, 돌아가시다, 드리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등은 주체와 객체에 대한 내용이 없이도 ‘있다, 죽다, 주다, 데리다, 보다, 묻다, 먹다, 자다’ 등의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대우를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그와 같은 생각을 위의 (10ㄱ)의 예에서 ‘아바님 뵈스뵈심 제’ 만을 따로이 도표화한 (11①)에 적용시키면 다음의 (11'①)과 같이 되어, 다음의 예 (10ㄱ')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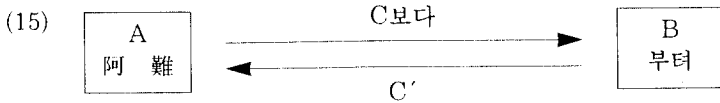
(10) ㄱ'. (태종이) 아바님 뵈심 제

위의 (11'①)에서의 C는 '(태종의) 뵙다' 라는 동작이고, 형태소 '-시-'는 태종의 동작 자체에 대한 대우를 나타내는 것이다. (11'②)의 '어마님 그리신'의 '-시-'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10ㄱ')의 예는 우리가 보았던 원래의 예인 (10ㄱ)과는 아직 차이가 있다. '-습-'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시-'와 '-습-'이 용언의 어간에 결합하여 용언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 바 있고, 그에 따르면 (11'①)의 C와 관련이 있는 것이 된다. 그 경우에 물론 '-습-'이 '-시-'와 동일한 의미,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셈이 되지만 우리는 '-시-'가 주체인 동작주의 행위를 대우한 것인 반면에 '-습-'은 '-시-'가 대우하는 방향의 역방향 즉 동작주의 행위 대상이 받는 동작에 대한 대우로 보려는 것이다. 다음의 몇가지 예를 보기로 하자.

(14) ㄱ. 阿難이 부터 보습고<능엄 1:39>

- ㄴ. 王과 大臣과 長者와 居士와 衲衣와 부터 조췌와 法要를 들췌고
저願 습더니<능엄 1:38>
- ㄷ. 外道 | 부터의 묻주와 놀<금삼 3:12>

위 (14)는 동사 ‘보다, 듣다, 묻다’의 예들이다. (14ㄱ)에서의 阿難의 동작은 ‘부처를 본 것’이고, 그때 부처의 동작은 ‘阿難에 의해 보여진 것’이다. 물론 그 경우 아난의 동작이 적극적인 행위라면, 부처의 동작은 소극적인 행위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관심은 ‘보다’라는 동작의 방향에 있다. (14ㄴ)에서도 ‘쫓아가고 法要를 듣고자 하고 願한 것’은 ‘王, 大臣, 長者, 居士’이고, ‘쫓김을 당하고, 法要를 말하도록 願함을 받은 것’은 부처이다. 마찬가지로 (14ㄷ)에서 질문을 한 것은 外道이고, 부처는 질문을 받은 것이다. (11)에서와 같은 그림으로 (14ㄱ)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1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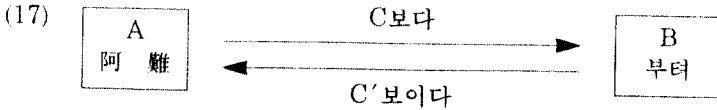
위의 C는 동작주인 아난의 ‘보는’ 동작이 행하여지는 방향이고, C’은 ‘아난의 보는 행위에 의한 부터의 보여지는’ 동작이 행하여지는 방향이다. 앞서 우리는 ‘-시-’가 C에 대한 대우라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원리로 (14ㄱ)에 보이는 ‘-습-’은 C’에 대한 대우로 보려는 것이다.

2.3 동작의 방향성에 관한 한 이와 같은 논의 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능동과 피동, 주동과 사동 등의 관계에 관한 논의 태도와 아주 흡사하다. 여기서 말하는 피동과 사동이란 통사적인 면에서의 피동과 사동뿐만 아니라 의미적인 면에서의 피동과 사동도 아울러 뜻한다.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C와 C’ 사이의 관계는 접미사에 의한 것은 물론, 피사동적인 의미를 가진 피사동적인 어휘들에 의해서도 설명되는 관계이다.²⁰⁾

- (16) ㄱ. 阿難이 부터를 보고
 ㄴ. 부테 阿難이게 보이고

20) 피동과 사동이 한 자리에서 논의되는 이유는 새로운 주어의 도입이라는 공통점과 ‘-이-’라는 접미사의 공유에 있다. 그렇지만 피동문의 주어는 능동대담문에서 오는 것인데 반하여, 사동문의 주어는 문장 외적인 요소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16ㄱ, ㄴ)은 전형적인 능동문과 피동문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이다. (16)을 앞의 (15)와 같은 방식의 그림으로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의 (17)과 같다.



만일 위의 (17)에서 C를 대우하고자 한다면 '보시다'로 될 것이고, C'을 대우하고자 한다면 '보이시다'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경우의 '-시-'의 출현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난이 동사 보다는의 행동주'일 경우와 '부터가 동사 보이다는의 행동주'일 경우에 한한다. 물론 동사 '보다'를 기준으로 하여서만 본다면 부터는 동사 '보다'의 피행동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때는 '-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습-'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즉 '-습-'은 '-시-'와 '대칭적인 대우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14ㄱ)의 예를 중심으로 '-시-'와 '-습-'의 출현 양상을 보이면 (18ㄱ, ㄴ), (19ㄱ, ㄴ)과 같다.

- (18) ㄱ. 阿難이 부터 보습고
 ㄴ. 부터 阿難이게 보이시고
- (19) ㄱ. 부터 阿難 보시고
 ㄴ. 阿難이 부터그 보이습고

(18ㄱ, ㄴ)과 (19ㄱ, ㄴ)은 각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절대치가 같은 문장이다. 다만 아난보다 상위자인 부터에 대한 동작 '보다'에 대우관계가 나타나는 양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것도 능동과 피동 사이의 관계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피동문과 그의 능동대당문 사이에도 의미절대치는 일치하기 때문이다.²¹⁾ 동일한 의미 내용을 피동문으로 표현할 것인가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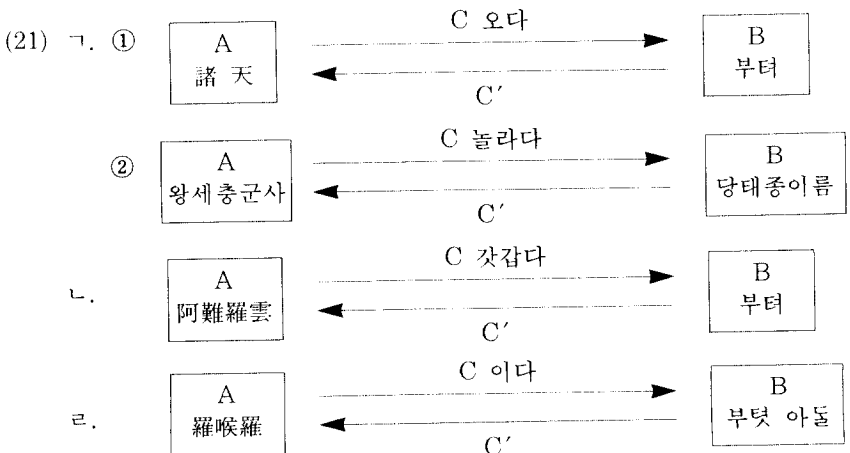
21) 능동문과 피동문, 능동사와 피동사 사이의 분포와 의미상의 차이 문제는 의미해석 부의 문제라는 태도에 대해서는 한재영(1984)를 참조할 것.

과 의미절대치가 같은 명제내용의 대우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모두 화자의 권한이라는 점도 흥미있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대우 표현 '-시-'와 '-습-'의 양방향은 앞서 살핀 예 (1)에서와 같이 한 문장 속에서 함께 출현할 수 있음에 반하여, 능동표현과 피동표현의 양방향이 하나의 문장으로 공존할 수 없다는 점은 중요한 차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내용의 주류는 동작의 방향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대상 설정이 가능한 타동사문에 있었다. 이제 예 (20)을 통하여 그들을 자동사문, 형용사문, 계사문의 이해로 가져가 보기로 하자.

- (20) 가. ① 나모 아래 안주샤 諸天이 오수^ㅁ며 寶床袈裟를 天龍이 받잡느니
 <월곡 117>
 ② 일후를 놀라수바놀 호^ㅁ아 뒤헤 서샤 手射數人 호샤 五千敵 이
 기시니 <용가 61>
 나. 阿難羅雲이 부텃기 갓잡스와<법화 4:49>
 다. 羅喉羅는 이 부텃 아드리수오니<법화 4:48>

위의 (20가①)은 자동사 '오다', (20가②)는 자동사 '놀라다'의 예이고, (20나)은 형용사 '갓잡다'의 예이며, (20다)은 계사 '이다'의 예이다. 역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앞서 살핀 (11)의 그림을 (21)에 가져오기로 한다.



위 (20)의 예에 보인 ‘오수분며, 놀라수바놀, 갓갑스와, 부텃 아드리수오니’는 (21)의 예에서 각각 C에 대응되는 C’의 대우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주체가 A일 경우, 즉 A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대우를 나타내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시-’와 ‘-습-’의 관계가 능동과 피동, 주동과 사동의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만일 화자가 (21)의 각각에 대하여 B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다음 (20’)의 예와 같이 될 것이다.

(20’) ㄱ. ① 부테 諸天을 오겨호시며<월곡 117>

② (당태종의 일흠이) (왕세충의 군사들) 놀라게 호시거늘<용가 61>

ㄴ. 부테 阿難羅雲을 갓갑게 호사<법화 4:49>

ㄷ. 이 부텃 아들은 羅喉羅이시니<법화 4:48>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시-’와 ‘-습-’이 각각 따로이 나타나는 경우의 예를 살펴온 셈이다. 논지를 선명하게 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었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예들이 거기에 머물지만은 않는다. 일찍이 예(1)의 타동사 ‘기르수분시니이다’에서도 보았지만, 다른 부류의 용언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습시-’가 예 (22)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서기 때문이다.²²⁾

(22) 어엇브신 무숨에 나가실가 저호사 太子시겨피 안쫘시니<월곡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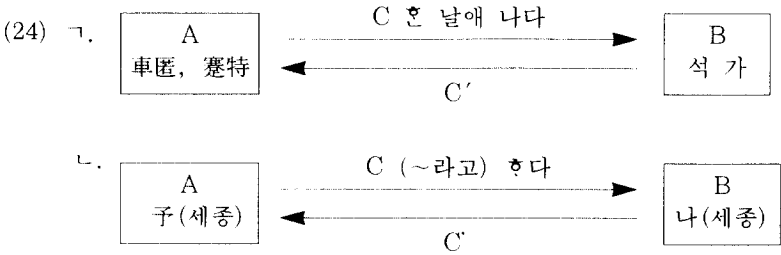
‘-시-’와 ‘-습-’이 가지고 있는 동작주의 대칭적인 대우방향성 대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빌어 왔던 피사동의 개념은 능동과 피동, 주동과 사동이 한 문장 내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인 반면에, ‘-시-’와 ‘-습-’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용언만이 나타나더라도 동작주 행위의 양방향은 결국 의미적으로는 각각 두 개의 용언과 그에 의한 두 가지 동작인 바, ‘-시-’와 ‘-습-’이 하나의 용언에 대한 대우 표현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흡사 하나의 동전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에 비유될직한 것이다. ‘-시-’와 ‘-습-’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태도는,

22) ‘-습시-’에 대해서는 이승욱(1968)을 참조할 것.

이해하기 어려웠던 (23)의 '-습-'에 대해서도 이들이 우리의 이해 범주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 (23) ㄱ. 車匪이 蹇特이논 혼 날애 나수불씩 이 들흘사 더브르시니<월곡 52>
 ㄴ. 주는 내 호습시는 브디시니라<정음>

'-습-'이 객체에 대한 대우인 한, 또는 상위자인 객어를 지배하는 동사에 사용되는 겸양법 접미사인 한, '석가가 車匪이 蹇特이와 같은 날에 태어나시었기에 이 둘과 함께 하시니'라고 하는 예 (23ㄱ)과 '주는 내가라고 하시든 뜻이시니라'라고 하는 예 (23ㄴ)의 '-습-'에 대한 온당한 이해는 여전히 많은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예 (23)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앞서 살핀 예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일관된 것이다. (24)의 그림을 보기로 하자.



(24ㄱ)의 A를 동작주로 하여 C'을 대우한 것이 예 (23ㄱ)의 '혼 날애 나수불씩'로 나타난 것이다. 앞서의 예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대우의 단위가 단순 용언이 아니라 동사구로 확장되었다는 것이지만, (23ㄱ)의 예에서 '나다'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같은 날에 태어났다'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동사구로의 확장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4ㄴ)의 A인 세종은 문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B의 '나'와 동일한 인물이며, 따라서 체언 A, B는 대우를 받을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용언의 대칭적인 두 동작 방향 C와 C'도 각각 '-시-'와 '-습-'으로 대우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요약컨대, 동작주가 A일 때 C에 대한 대우는 '-시-'로, C'에 대한 대우는

'-습-'으로 나타나고 동작주가 B일 때 C에 대한 대우는 '-습-'으로, C'에 대한 대우는 '-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동작주를 고정된 상태에 두고 볼 때, '-시-'와 '-습-'은 용언이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대칭적인 방향이 형성하고 있는 체계 속에서 비로소 선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3.0 본고는 '-습-'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인가, 중세국어 대우법 체계 속에서 '-습-'의 위치는 어디쯤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궁금중으로 부터 출발하였다. 객체 또는 객어와 모종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기존의 논의들이 보여 주는, 객체 또는 객어의 외연이 쉽게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못한다는 점과 하나의 문장 속에 나타나는 경어의 요소가 중복되어 나타난다고 이해하는 점은 논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부딪힌 첫번째 문제였다. 그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는 주체나 객체와 같은 체언에 대한 대우가 체언 내부의 문제 해결 방식 이를 테면, 체언 자체가 존칭 체언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체언일 경우에는 체언 뒤에 '-님'을 붙여 대우하기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와 같은 원리로 용언에 대한 대우도 용언 자체가 대우를 나타내기도 하고, '-시-'를 선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때의 '-시-'는 동작주가 용언으로 표현된 행위를 행사하는 방향에 대한 대우임도 알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동작주의 행위 행사 방향이란 흡사 능동과 피동, 주동과 사동 사이의 관계처럼 대칭 방향성을 갖는다는 데에 착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우리는 '-시-'와 '-습-'은 하나의 용언에 의하여 표현되는 동작이나 상태의 대칭방향에 대한 대우의 몫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우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은 문법적·통사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의미적이고 화용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피사동문의 선택이 화자의 권한인 것처럼 대우요소의 선택여부도 온전히 화자의 권한인 것이다. 이처럼 대우법이 의미·화용적인 문제인 한, 범위를 줄여 '-시-'와 '-습-'의 선택여부가 의미·화용적인 문제인 한, 객체 또는 객어가 가지는 외연의 크기는 문제의 대상 밖에 위치하게 된다. 객체라든가 객어 자체가 문법론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3.1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우선 본고에서 살핀 ‘-시-’와 ‘-습-’ 사이의 관계는 중세국어의 대우법이 가지고 있는 체계의 극히 적은 일부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와 함께 본고에서는 전혀 손도 대지 못했던, 대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시-’와 ‘-습-’의 배열순서 문제가 그렇고, 공손법과 ‘-시-’와 ‘-습-’이 이루는 문법적인 대우법체계에 전반 관한 문제가 그러하며, 존대 어휘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어휘적인 대우법이 형성하고 있는 체계에 관한 문제 또한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중세국어에서 그토록 왕성한 생산력을 가졌던 ‘-습-’의 변천 과정과 그에 따른 대우법 체계의 변화 양상도 흥미있는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항(1990), 증보판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강정희(1974), 형태소 ‘습’에 대한 자료 연구, 한국어문 연구, 이화 여대.
- 강창석(1987), 국어 경어법의 본질적 의미, 울산어문논집 제3집.
- 김동식(1984), 객체높임법의 ‘습’에 대한 검토, 관악어문연구 9.
- 김상익(1975), 용비어천가, 을유문고 171, 을유문화사.
- 김상익(1986), 고려 속가요에 있는 겸하선어미 {-습-}류 해석에 대하여, 동천조건상선생고회기념논총.
- 김정수(1984), 17세기 한국말의 높임법과 그 15세기로부터의 변천, 정음사.
- 김혜숙(1983), 대우법 형태소 변천고, 동악어문논집 17, 동국대.
- 김충희(1990), 겸양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김형규(1962), 경양사 문제의 재론, 한글 129.
- 김형규(1975), 국어 경어법연구, 동양학 5.
- 남광우·성환갑(1982), 월인천강지곡, 형설출판사.
- 박양규(1975), 존칭체언의 통사적 특징, 진단학보 40.
- 서병국(1966), 존경법 시비고:15C의 객체 겸양법(습)을 중심으로, 경북대 논문집 10, 경북대.

- 서정목(1991), 국어경어법의 변천, '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5회 학술세미나 발표 초록.
- 서정수(1984), 존대법연구, 한신문화사.
- 성기철(1985), 현대국어 대우법 연구, 개문사.
- 성기철(1990), 공손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안병희(1961), 주체겸양법의 접미사 '-습-'에 대하여, 진단학보 22, 진단학회.
- 안병희(1963), 십오세기 국어의 경어법 접미사 '-님'에 대하여, 문리대학보 (건국대) 1.
- 안병희(1968), 중세국어 속격어미 '-스'에 대하여, 이송녕선생송수기념논총.
- 안병희(1982ㄱ), 중세국어 경어법연구에 대한 반성, 국어학 11.
- 안병희(1982ㄴ), 중세국어 경어법의 한두 문제, 백영정병욱선생환갑기념논총.
- 안병희(1992), 국어사 연구, 문학과지성사.
- 유동석(1991),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김완진선생회갑기념논총, 민음사.
- 윤용선(1986), 중세국어 경어법 연구, 국어연구 71.
- 이송녕(1964), 경어법 연구, 진단학보 25·26·27.
- 이승욱(1968), '-습시'고, 이송녕박사 송수 기념 논총, 을유문화사.
- 이철수(1976), 현대국어 명사류어의 대우표현, 선칭어문 7.
- 이현규(1985), 객체 존대 '-습-'의 변화, 배달말 10.
- 이익섭(1974), 국어 경어법의 체계화 문제, 국어학 2.
- 이현희(1985), 근대국어 경어법의 몇 문제, 한신어문연구 1.
- 임홍빈(1976), 존대·겸양의 통사절차에 대하여, 문법연구 3, 문법연구회.
- 임홍빈(1985ㄱ), 「-시-」와 경험주 상정의 시점, 국어학 12.
- 임홍빈(1985ㄴ), 청자 존대법상의 '해'체와 '해라'체에 대하여, 천시권 박사 화갑기념 국어학 논총.
- 임홍빈(1985ㄷ), 현대의 「-삼-」과 예사 높임의 「-오-」에 대하여, 선오당김형기선생팔절기념 국어학논총, 창학사.
- 임홍빈(1986), 청자 대우 등급의 명명법에 대하여, 약천 김민수교수화갑기념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 임홍빈(1990ㄱ), 어휘적 대우와 대우법 체계의 문제, 강신항교수회갑기념 국어학논문집.

- 임홍빈(1990), 존경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전재관(1958), '-습-' 따위 경양사의 산고, 경북대 논문집 2, 경북대.
- 정연찬(1970), 주체 겸양법의 접미사 '-습-'의 성조, 국문학논집 4, 단국대.
- 최기호(1981), 17세기 국어 '-습-'의 통사 기능, 말 6, 연세대 한국어학당
- 최남희(1987), 선어말어미 「-*습-」의 통어적 기능, 건국어문학 11 12합집.
- 한재영(1984), 중세국어 피동구문의 성격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61.
- 허웅(1954), 존대법사, 성균학보 1.
- 허웅(1955), 용비어천가, 정음사.
- 허웅(1963), 중세국어연구, 정음사.
- 황부영(1959), 15세기 조선어 존칭범주의 연구, 과학원출판사.
- 鈴木虎雄·黒川洋一 역주(1965), 杜詩, 岩波書店.